

신안의 장승

지도 후촌 석장성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후촌
멀리 부서지는 서해의 흰 파도를 배경
으로 모진 풍상을 다 겪은 듯한 할
아버지, 할머니 장성이 후촌마을에
서 있다.

당촌리(堂村里)는 지도읍에서 바
다건너 사옥도(沙玉島) 동쪽의 당
촌(당말)과 서쪽의 후촌(後村)이라
는 자연마을로 나뉘어 있다. 후촌마
을은 사옥도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배산임해의 마을로 총 50여 가구에
190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 후촌마을에서 장도(長島)로
가는 마을어귀 '장성거리' 라고 부
르는 곳에 2기의 장성이 90미터의
간격을 두고 마주보고 있다. 할아버
지 장성은 마을 앞 눈독길에 있고,
할머니장성은 장성거리 근처 민가
옆에 세워져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 장성들은 1917년 세워졌다고 한
다.

이 마을에는 지금으로 부터 약 3백년전
에 지금의 장성이 서 있던 자리에 목장
성(木長性)이 서 있었는데 오랜 비바람
에 접차 썩어 없어진 뒤로 세우지 않았
다고 한다. 그후 4~5년 사이에 이 마을



에 계속해서 인명피해, 농사흉년, 가뭄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이상히 여긴 주민들이 그 위치에 지금의 석장성을 세웠다. 그러자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고 농사도 잘 되어 풍년을 누렸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할아버지 장성은 높이 2미터, 둘레 127미터로 마을 동북쪽 논위에서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높이 1.78미터, 둘레 122미터인 할머니 장성은 마을 남서쪽에서 동북쪽 논위에서 있는 할아버지 장성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이 두 장성은 날씬한 키에다 가늘게 팔자(八字)형으로 늘어진 윗눈썹과 안경을 쓴듯 튀

어나온 두 눈, 짧고 약간 튀어나온 입술이 마치 장승부부를 보는 듯한 인상이다.

무표정한 형태의 할머니 장성은 장방형(長方形)의 자연석 화강암을 이용해서 눈·코·입 등을 적당히 양각했다. 55센티미터나 되는 얼굴에는 네모난 자연석에 융기된 눈썹을 만들어 긴 이마를 표시하고 둥근 안경테 마냥 눈을 선각하였으며 세모난 코에 一字로 굳게 다문 입을 잘 표현하였다. 턱은 얇은 선각으로만 표현하였을 뿐 별다른 조각은 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인상은 무뚝뚝하면서도 어리숙한, 그러나 성실한 자태의 수문장을 연상케 한다.

할아버지 장성은 장방형 자연석의 머리윗부분을 잘라 두건형의 모자를 쓴 느낌을 주고 있다. 넓고 긴 이마는 평면을 표현하였고 반달같은 눈썹에다 매뚜기눈 형태로 동공을 새겼다. 세모난 코 아래로 꼭 다문 두툼한 입술이 야무진 느낌을 주고 있는데 입술 밑에 다섯가락의 수염이 퍼져 있고, 턱밑 한 가운데 수염선을 길게 늘어뜨렸다.

이 두 장성은 아무런 명문(銘文)도 새겨져 있지 않아 단조로운 가운데 전체적을 할머니 장성은 무뚝뚝한 반면 할아버지 장성은 인자하고 재미난 표정이다.

이 마을은 해마다 음력 정월 초하루에 뒷산 유산봉 중턱에 있는 '후촌당'에서 堂祭를 지낸다. 할머니·할아버지 장성은 하당(下堂)의 신체



할아버지장성, 신안 지도 당촌리 후촌 소재

(神體)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이곳에는 어떤 제의(祭儀)도 행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장승연구가들은 이 마을의 지명만으로도 장승소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얘기한다. 곧 마을이름이 지금은 쓰기 쉽고 간단한 한자인 '後村'으로 표기되나, 옛날에는 분명히 '侯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다. 侯村은 대부분 장승을 표기하였던 글자로 알려지고 있어 그 같은 주장은 적잖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선불리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 지명인지라 차후 정밀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할머니장성, 신안 지도 후촌 소재

도초도 외삼마을 석장성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외남리 외삼마을

커다란 모자에 익살스러운 얼굴, 부처님 귀, 무늬가 선명한 갈비뼈, 나뭇잎 모양의 손에 쥔 창 등이 한데 어우러져 멋진 조각품을 이루고 있는 장승이다.

장승이 서있는 신안군 도초면 외남리(外南里) 외상(外上)마을은 도초면 소재지에서 북서쪽으로약 2킬로미터, 화도(火島) 선착장에서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있다. 외삼마을 어귀, 속칭 '빋턱골'이라는 곳의 밭둑 위에 있는 높이 24미터의 이 장승은 주민들 사이에서 '장성', '장석'이라고도 불리운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 장승이 세워진 것은 불과 45년 전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잔데돔'이라는 마을안 공동우물 옆에 세워졌으나 20년 전에 현재의 밭둑을 옮겼다고 한다.

이 마을 청년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등 불상사가 겹치자 무당에게 굿을 하게 한즉 외삼마을 앞 밭매(發梅)마을에 있는 한 바위의 기세가 너무 드세다고 하여 이 장승을 세웠다고 한다. '진개바위', '김가(金家)바위', '장군바위'로 불리우는 이 바위가 외삼마을쪽에서 바라볼 때 자기 마을의 형세를 가로막는 형국이기 때문에 불상사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장승은 큰 갓을 쓰고 손에는 나뭇

가지 모양의 창을 잡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잡귀를 방지한다는 의미이다. 긴 얼굴의 상부에 타원형의 눈이 있고 눈동자는 황색물감으로 그려져 있다. 전에는 구슬로 눈동자를 박아 놓았으나 지금은 구슬이 빠진 그 자리가 패어 있다. 입은 一字로 벌어져 치아들이 모두 드러나 있다. 턱에는 수염을 달기 위해 여러 개의 구멍을 뚫었는데 전에는 이곳에 머리카락을 매어달아 수염의 형상을 갖추었다고 한다. 귀는 부처님처럼 귓볼을 크게 하여 축 늘어진 것처럼 보인다.

가슴에는 좌우로 일곱줄의 사선을 음각하여 갈비뼈를 표시했고 가슴아랫부위는 목부분과 마찬가지로 옷자락을 새겨 냈다. 또 도포자락 아래부분에 고향(擧丸) 모양이 음각 돼 있었으나 약 30년 전에 주민들이 흉하다고 하여 파내버려 현재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패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부위의 선명한 선각(線刻), 갈비뼈, 옷자락 등이 매우 사실적인 느낌을 주고 있어 전남지방 뿐만 아니라 여타의 지방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이다.

장승의 기단부에는 장승을 건립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나 땅속에 묻혀 있어 확인할 수 없었다.

외상 마을에는 천주교가 일찍부터 전파되어 교당도 있는데 천주교가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까지는 장승

이 민간신앙의 대상물로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부녀자들은 장승앞에서 아들 낳기를 기원하기도 했고 마을의 비보(裨補)를 위해 장승에 왼새끼로 금줄을 치고 당골(무당)을 데려다가 마을에서 제를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민간신앙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지고 다만 마을 경관물의 하나로 존재할 따름이다. 이는 서양종교, 과학문명 등이 한꺼번에 우리나라 전역에 민력음으로써 장승을 포함한 민속, 민간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말해준다. 특히 도서지방에는 고정된 생활 영역에서 외래종교의 전파는 주민정신생활을 완전히 뒤바꾸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신안 도초도 외상마을 석장성 가슴 부위에 선명하게 드러난 갈비뼈가 사실적인 작품이다.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도초도 고란마을 석장승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고란리 고란마을
옛부터 난초가 많아 고란(古蘭) 이라 불렸던 이 마을은 110여 가구에 570여 명이 살고 있는 유서깊은 곳이다. 마을앞 1백미터 지점에 160여평의 넓직한 담마당이 있고 그 중앙에 수령 약 3백년으로 추정되는 팽나무, 노송이 있어 한국의 전형적인 전통마을을 연상케 된다.

고란마을에 들어서면 높이 29미터, 두께 40센티미터의 커다란 석장승이 눈에 뜨인다. 마을 개천 건너 다리목에 '장승

거리' 혹은 '삼거리' 라고 불리우는 곳에 있는 이 장승은 액(厄)과 살을 막아 주민을 보호하고 마을을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

주민들에 따르면 약 5백년 전 이 마을에 괴질이 번져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적이 있었다. 이 때 마을을 지나가던 도승이 "마을 앞에 장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면 화를 면할 수 있으리라"고 충고를 했다.

주민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여 주민중에 손재주가 있는 사람을 시켜 나무를 깎아 목(木)장승을 세웠다. 그 후에 마을에서는 장승앞에다 '당제'를 지냈고 또 개별적으로 장승앞에 움막을 쳐놓고 당

골(무당)을 불러들여 며칠씩 정성을 들이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 목장승 대신 1938년에 석장승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의 장승 뒷면에 '乙丑十三年' 이라고 뚜렷이 새겨져 있다. 본래는 '昭和十三年' 이라고 새겨져 있었는데 해방 후 일본 연호를 버리고 소화 1년을 을축을 새겨 넣었다.

이 장승 제작은 도초면에 거주하던 석공들을 불러 제작케 했다. 장승에 쓰인 돌은 고란리 난말(古蘭里 蘭末)에서 골라 주민들이 모두 동원되어 끌어왔으며, 장승을 처음 세울 때는 그 앞에 소머리를 진설(陳設)하고 제를 올렸다 한다.

장승은 머리에 약 30센티미터의 두툽한 모자를 쓰고 몸에는 긴옷을 걸



신안 도초도 고란마을 석장승. 1938년 제작

친 모습이다. 모자를 쓴 것은 제작시기인 1930년대에 유행하던 근대식 신사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80센티미터 길이의 얼굴은 29미터의 크기에 비해 다소 긴편이다. 커다란 타원형의 눈은 푹 튀어나왔고, 좁은 양미간에서 길게 내려온 코는 두툼하여 투박한 느낌을 준다. 반달형의 입모양에 옥수수처럼 고른 이빨은 이 장승이 생기를 띠게 하는 극적인 요소이다. 이빨의 묘사는 행인들이나 앞쪽의 자연물에게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에서 였는지 웃니, 아랫니를 활짝 드러낸 형상인데 오히려 웃는 모습같기도 하다. 얼굴 측면의 귀는 길고 두툼하게 이어져 내려와 투박하면서도 일면 부처님의 귀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어깨에 치켜 올려진 옷깃은 마치 한겨울을 연상케 한다.

전체적인 인상은 얼핏보기엔 투박하고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듯하나 자세히 대할수록 포근하고 익살스러운 모습이다.

고란마을에서는 약 20년 전까지도 당제(堂祭)를 지냈었는데 현재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 당제는 상당제와 하당제로 나뉘어 성대히 지냈고 제후에는 또 다른 제의인 죽마제(竹馬祭)를 지냈다. 고란리의 당제와 죽마제는 도초도의 제사로, 도초도 관내의 24개 마을은 물론 인근 섬에서도 구경을 정도였다.

당제일은 음력 정월 보름이었으며 상당의 당집에는 당할머니, 할아버지, 며느리, 아들, 딸과 마신(馬神), 지신(地神), 왕신(王神)을 모셨으나 현재는 당나무와

당마당만 남아 있다.

하당제의 당신(堂神)은 천하대장군이었으며 그 신체(神體)가 장승이었다.

하당제 때에 술과 음식을 음복한 주민들은 오전 9시경에 농악대를 앞세워 당마당에 이르러 연희성이 강한 죽마제를 거행했다.

상당에 모셨던 마신의 신체인 죽마는 대나무로 말갈격, 귀, 꼬리 등을 만든다. 잔등 위에 짚을 깔아 사람이 탈 수 있게 했고, 머리는 짚으로 엮어 단단하게 뭉쳐 참종이로 씌우고 먹으로 눈과 코를 그렸다.

죽마제는 연극적 성격이 강한 제의로 제주(祭主)가 죽마를 탄 마장수(馬將帥)에게 제물을 대접하는 대사(臺詞)를 주고 받은 뒤 마장수가 죽마를 타고 달리면 동네사람들은 죽마의 말머리와 입 부분을 힘차게 때리곤 했다. 이것은 동네사람들에게 매를 맞아 말의 주둥이가 터지면 농사가 잘된다는 믿음이 전해 내려오기 때문이다.

이때 마장수는 동네사람들에게 쫓겨다니다가 2킬로미터 떨어진 엄감포구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서 마신에게 제물을 차리고 모든 재액(災厄)을 갖고 나가도록 기원한 후 죽마를 바다에 버림으로써 제가 모두 끝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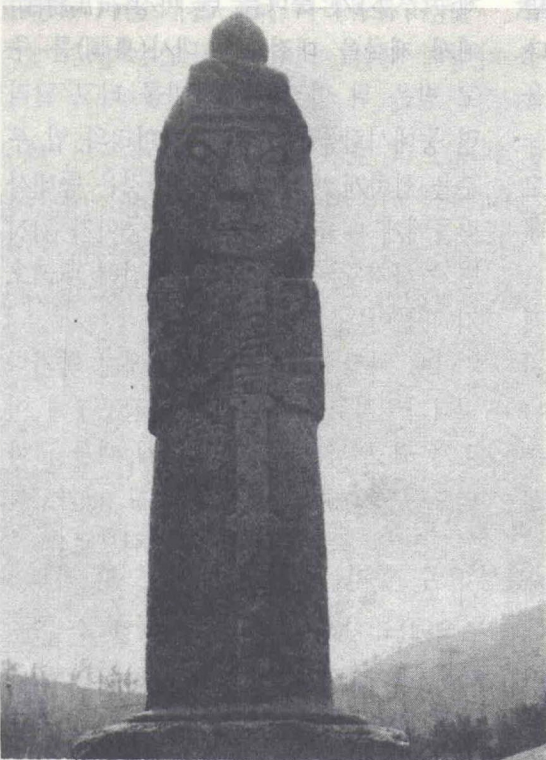
현재는 정확한 고증작업을 할 수 없으나 고란리의 당제는 상당제, 하당제, 죽마제가 연이어 행해져 도서지방의 민속연구, 특히 섬지방 사람들이 말을 중요시 여겨 이런 사실을 연극적 요소로 꾸뒀던

예술성까지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였을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모두 희미한 과거로 간직될 뿐이다.

비금도 월포마을 대장군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월포마을
 '대장군' 또는 '장군석' '이순신장성'으로 불리는 이 장승은 큰 칼을 턱밑에서부터 축 늘어뜨리고 무언가를 뚫어지듯 노려보는 성난 장군상이다.

대장군이 서 있는 월포(月浦)마을은 장승과 함께 상당과 하당신을 모시는 전통성이 강한 마을이다. 비금면 소재지에서



대장군(大將軍), 두 손으로 거머쥔 긴 대검이 장군임을 실감케 한다. 1955년 제작, 신안 비금도 월포 소재

남서쪽으로 4킬로미터쯤 떨어진 월포마을은 30여호에 백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비교적 바닷가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자리잡고 있지만 어선을 소유한 사람은 없고 대부분은 마을 앞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다.

이 대장군은 단기 4288년(1955) 을미년(乙未年)에 세워진 것으로 높이가 2.7미터, 둘레가 60센티미터, 대검(大劍) 길이가 1.5미터이다. 기단부에 '大將軍'이란 명칭과 함께 연대가 새겨져 있어 이 장승을 세운 유래와 경위도 확실한 편이다.

이 마을 주민이었던 전남군씨(작고)는 풍수지리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1950년대 초 마을의 젊은이들이 사망하는 등 액운이 겹치자 전씨는 그 원인이 마을 앞쪽 선왕산(仙王山) 숭애봉에 불길하게 보이는 범아재비 모양의 바위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결국 주민들이 그 범아재비 바위를 개버리고 숭애봉의 세찬 기(氣)를 막아내기 위하여 숭애봉과 마주보는 장승을 세우게 된 것이다.

장승은 당시 도초면에 거주하는 세명의 석공(石匠)을 불러다 제작했다 한다. 이들은 마을의 농경지 건너편 뒷산의 바위를 장승의 재료로 이용했다.

대장군은 머리에 투구를 쓰고 두 손으로 대검을 거머쥐었으며 눈을 위로 치켜 떠 건너편의 숭애봉을 주시하고 있다. 동그란 꼭대기에 이마를 질근 동여맨 투구는 양 어깨까지

내려와 있다. 동그란 얼굴에 눈은 치켜올라고 큰 코가 양각되었으며 짧고 굳게 다물고 있는 입술은 위엄있는 분위기를 풍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얇은 선각(線刻)을 위주로 하였기에 입체감이 덜한 느낌이다. 더구나 투구 윗부분과 아래기단은 시멘트로 발라 장승이 가진 전통성을 반감시키는 아쉬움이 있으나 시멘트 사용도 문화가 사회적 배경을 담게 되는 그 시대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월포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날 가정에 '산제' 또는 '당제'라 부르는 제의(祭儀)를 마을 뒷산의 상당(上堂)에서 지낸다. 이 상당의 당신(堂神)은 산신, 당할머니, 당할아버지이다. 상당 아래쪽에는 쥐신을 모신 '쥐당'이 있다. 그리고 하당(下堂)이 바로 대장군이다.

과거에는 장승에 대한 주민들의 신앙이 강했다. 주민들은 잔치집이나 친척들 집에 다녀올 때면 장승옆에 떡이나 술을 조금씩 떼어 던져두고 갔으며 만약 그냥 지나칠 때에는 반드시 탈이 난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 규모의 장승제만 지낼 뿐 별다른 의례적 행위는 찾을 길이 없다. 더구나 이러한 장승제 마저도 마을 젊은이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행위라고 결사코 반대하고 있어 전통의 단절이 예상된다.

흑산도 천촌(여티미)목장승

소재지 : 신안군 흑산면 천촌리(여티미)

흑산도는 육지와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고도(孤島)이며 독특한 민속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민속학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진다. 근래의 해상 교통의 발달로 수많은 관광객이 흑산도와 홍도를 관광지로 찾고 있어 많은 민속자료들이 훼손되고 있으나 여전히 연구할만한 최고의 지역으로 여겨진다.

특히 흑산도의 경우 여객선이 닿는 예리항이나 진리항은 외래객이 많으나 섬의 후미진 지역이나 산골, 계곡마을은 수백년 전의 생활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부듯가인 예리항에서 72킬로미터 떨어진 천촌(淺村)마을은 선편으로 40~50분, 산길따라 걸어가면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83년도에 34세대 18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으나 그 이후엔 점점 가구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 마을 역시 전통민속이 강하게 남아 있어 당산제가 행해지고 있는데 상당(上堂)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위를 모신 당집이 있고 하당(下堂)에는 목장승이 한쌍 있어 영감, 각시라 불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민의식 특히 젊은층의 의식이 달라져 당집도 없어지고 목장승도 사라졌다.

이 장승은 주민들이 평소에 영감, 각시라 부르지만 제사(매년 정월 초하루)때는 할아버지·할머니라고 부른다. 장승은 형편에 따라 2~3년에 한번씩 2개 또는 4개씩 세웠고 낡은 장승이 썩어 없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데 많을 때는 14개까

지 무리를 이루었다 한다. 이 장승의 제작은 과거에는 윤장근씨(작고)가 제작했고 글씨는 새기지 않았으나 때로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이라 쓰기도 했다.

할아버지 장승은 1.6미터이고, 할머니 장승은 1.25미터이다. 나무의 재질은 소나무를 이용하였고, 일직선의 나무보다는 약간 휘 나무를 주로 사용했다.

육지의 장승처럼 많은 변화나 괴기스런 모습이 아니라 평범하고 수수한 모습이나 해안지방민의 염원을 듬뿍 담아 상징화 했다.

해안지방민들은 폭풍우와 일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각종 제의를 모시는데 천촌리에서도 당산제를 지냈다.

대개 선달 그믐날부터 정월 초이튿날까지 3일간에 걸쳐 지냈는데 제를 지내려면 마을에 산고(産苦)가 있거나 상(喪)을 입거나 또는 초빈(사람이 죽으면 산위에 나무선반을 만들어 시체를 올려 놓고 짚을 만들어 씌워서 가매장을 한 후 탈골이 되면 다시 땅에 묻는 풍습)을 한 지 1년을 지나지 않을 경우에 제일(祭日)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산제는 실제 3년에 한번씩 거행되었다.

제과정은 그믐날 밤부터 3일간 큰집인 상당신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손비빔을 드리고 새벽에 하당터의 장승에 제사를 올린다. 장승 주위엔 미리서 종이띠(창지)를 둘러 잡귀를 방지한다. 제물은 육류는 사용하지 않고 찌밥(꼬두밥), 편(시루안에 나뭇잎을 넣고 찐 떡), 산채, 나물

(더덕등), 명태, 홍어 등을 사용한다. 이때 편은 나무가지에 매달아 놓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당산제가 해를 거듭해 오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마을 회의에서 특히 젊은층에게 호응을 얻지 못해 지금은 시들해져 버렸다. 젊은 세대들은 당산제를 지내거나 신위를 모시는 것을 귀신을 숭상

하는 일로 받아들여 쓸데 없는 일로 여기며, 그들에게 더

욱 시급한 일은 부두시설 독·어항·해안도로 확장 등에 신경을 쏟는 것이 시급하다는 논리였다. 결국 물밀듯 밀려오는 선별되지 않는 과학문명과 경제 논리가 이 마을의 전통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

